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송승*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Vancouver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7. 8. 6(일) ~ 8. 27(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캐나다 British Columbia 주의 밴쿠버에 있는 Langara college이다.</p> <p>카페테리아에 팀홀튼과 햄버거를 파는 곳이 있다. 심지어 전자레인지도 있어서 음식을 따뜻하게 먹고 싶으면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많은 학생들이 전자레인지를 사용했다. 스타벅스도 학교 안에 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 복도도 깨끗하다. 학교 안에 의자에 앉아 쉴 수 있는 곳도 있다. 도서관도 있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학교가 커서 처음에는 길이 복잡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적응을 할 수 있다. 학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5분정도만 걸어가면 스카이트레인 역이 있다. 학교와 역하고 가까워 트레인을 타고 다운타운으로 가기 편리하다. 트레인은 막차가 약 새벽 1시까지이고 버스는 약 새벽 12시까지이다. 8월 6일에 도착했을 때 Langara 학생들이 기말고사 시험기간이어서 학생들이 많았지만 기말고사 시험이 끝나면 학교에 학생들이 많지 않아 한국학생과 일본학생들이 많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처음에 가면 Listening test를 보고 분반을 하게 된다. 각 반별로 선생님이 계신다. 주로 수업은 그룹 대화가 많았다. 주제가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는 형식의 수업이 많았다. 보통 수준이 비슷하여 영어를 말할 때 위축되거나 부끄러움을 가지지는 않게 된다. 과제는 Activity에 대한 느낀점 등을 쓰는 것도 있고, presentation을 준비하는 과제도 있었다. 과제는 1~2시간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부담이 없는 과제들이었다. 선생님은 항상 수업에 열정적이셨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Activity활동은 Discover Vancouver, Kayaking, Poster Presentation, Vancouver Aquarium, All class Activity, Museum of Vancouver, Whistler Trip 그리고 Closing Ceremony 이렇게 총 8가지를 한다.</p> <p>Discover Vancouver는 Vancouver를 돌아다니면서 주어진 미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어진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한다.</p> <p>Kayaking은 바다에 가서 Kayaking을 하게 된다 햇빛이 강하니까 선글라스 선크림은 필수로 가져가야한다.</p> <p>Poster Presentation은 Discover Vancouver를 주제로 팀을 이루어 발표를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다.</p> <p>Vancouver Aquarium은 아쿠아리움에 가서 다양한 물고기들을 보게 된다.</p> <p>All class Activity은 모든 class들이 모여서 미션을 수행하고 게임을 하게 된다.</p> <p>Museum of Vancouver는 반별로 다른데 어떤 반은 박물관에 가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어떤 반은 한가지 주제가 주어지면 그것에 대한 presentation이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게 된다.</p> <p>Whistler Trip는 Whistler에 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게 된다.</p> <p>Closing Ceremony는 반별로 하나 씩 무언가를 준비해서 발표를 하게 된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한국처럼 습하지 않아 온도가 높아도 덥지가 않다. 그늘에 들어가면 오히려 춥다. 아침과 밤에는 춥고 해가 뜨기 시작하면 더워진다. 그러니까 여름옷 과 겹옷을 들고 가는 것이 좋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다운타운에는 홈리스피플이 조금 있어서 위험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알려준대로만 하면 위험할 일이 없다. 밴쿠버는 해가 8~9시 사이에 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길거리가 밝고, 또 해가 진 다음에도 안전하다. 매일 밤에 집에 들어갔지만 한 번도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물론 걸을 때 당당하게 걷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방에는 침대, 책상, 서랍장 그리고 옷장이 있었다. 침대는 충분히 컸고, 옷장도 넓고 옷걸이도 많이 있었다. 서랍장도 많이 있어서 옷을 다 넣고도 남았었다.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있어서 푹신했다. 홈스테이 가족들이 음식도 잘 챙겨주고, 안부도 매일 물어봐줘서 좋았다. 월~목,일에는 22시30분까지 홈스테이 집에 들어가야하고 금,토요일에는 23시30분까지 들어가야 한다. 만약에 차를 놓쳤거나 사정이 생겨서 늦게 들어가게되는 경우에는 꼭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려서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야한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o)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보통 점심은 홈스테이 가족들이 싸주는 샌드위치를 먹었고, 저녁은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밖에서 많이 사먹었었다. 하지만 가끔 집에서 먹었는데, 저녁이 너무 맛있었다. 처음에는 쌀을 안 먹고 파스타나 소세지를 먹어서 음식이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맛있게 잘 먹었다. 밴쿠버에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중국음식, 일본음식 등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Langara college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걸어 다녔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755,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1,966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쇼핑,식비,활동비	1,000,000원	자전거렌트,입장료
합계	2,786,966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밴쿠버에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홈스테이 가족들이 꼭 서양인이라는 생각은 안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동양인 홈스테이 가족들이 더 많다. 밴쿠버는 물을 탱크에 저장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물을 한 번에 많이 써버리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은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길게 샤워하는 습관은 한국에 두고 오는게 좋다. 거의 10분 안에 샤워를 마치는 것을 권장한다. 일본인 친구들은 10분만에 샤워하는게 힘들다고 했지만, 한국인들은 대부분 잘 했던 거 같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영어로 수업을 하고, 물건을 살 때도 영어를 사용하고, 영어에 자주 노출되는 환경에서 살게 되니까 영어를 공부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언어로 느껴져서 영어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 영어를 문법에 맞게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영어를 말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생각을 해보면 한국인들 중에 문법에 맞게 말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영어도 일단은 단어라도 말하면서 대화를 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건을 살 때, 영어를 문법에 맞게 못 말한다고 아예 말을 안하는 것 보다는 단어를 말하거나 메뉴에 적혀있는 것이라도 읽으면서 자신감을 가지는게 중요하다. 이렇게 한 두 번 하다보면 단어는 말할 수 있으니까 주어+동사를 넣어서 말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원하는 말을 문법에 맞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캐나다어학연수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캐나다에 가서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영어를 왜 공부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면 더 좋을 것 같다. 또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도 하면 좋을 것이다. 나는 이번에 가서 정말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다고 많이 느끼게 되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서, 한국에서만 살면서 일자리가 없다, 기회가 오지를 않는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캐나다에는 다양한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왜 다른 나라에서 캐나다에 왔는지도 알 수 있었고, 굳이 캐나다를 선택한 이유 등도 알 수 있었다. 세상은 넓으니까 기회도 그 만큼 많을 것이다. 한국이라는 작은 땅에서만 기회를 찾으려고 하지말고 세상에 나가 어떤 기회가 있는지 직접 보고 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이번에 캐나다를 갔다 오고 나서 더욱 확실해졌다. 교환학생을 가서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느낄 것이다. 더 많은 곳에 가서 기회를 찾을 것이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Kayaking 할 때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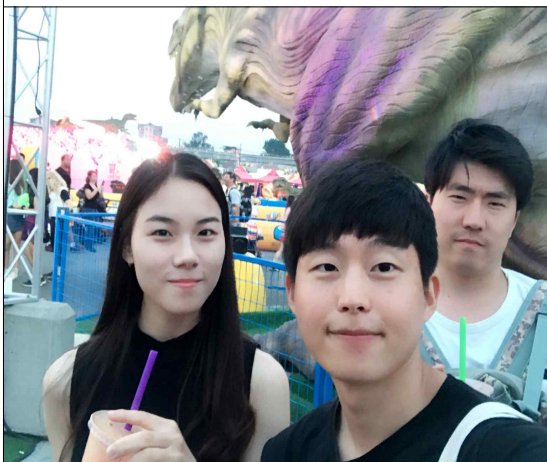
Discover Vancouver 할 때의 사진이다.



그룹별 Presentation 할 때 사진이다



Whistler에 갔을 때 일본인 친구들이 찍은 사진이다.



리치몬드 야시장에서 찍은 사진이다.



키칠라노 비치에서 찍은 사진이다.